

솔숲에 들어가 묵향과 함께 붓 따라

이미경 작가 'Pine Grove展' 19일까지 전주교동아트미술관서 소나무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 전시

동양화가 首定 이미경 작가의 'Pine Grove展'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전주교동아트미술관(관장 김완순)에서 열린다.

이미경 작가는 전주 출신으로 동양화를 전공한 재원이다. 이 작가의 활동 무대는 서울 지역이다. 따라서 개인전과 그룹전시회도 주로 서울 지역 미술관에서 이뤄진다.

2014 The K gallery- '여름날의 대화展', 2015 경인미술관 '김성채색 3인展', 2016 가나아트스페이스 '和而不同展', 2018년 갤러리H- '달빛所展'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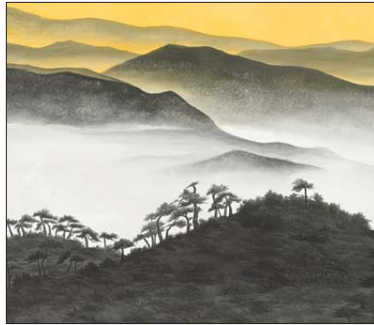
이 작가의 작품세계는 솔숲에 들어가 묵향과 함께 세월 붓에 따라 미세한 솔잎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섬세함이 묻어난다.

작품 속을 들여다보면 사계절 푸르름으로 변치 않는 그 지태의 고고함, 수백년 삶을 견뎌낸 인고, 길고 긴 시간 우리민족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숭고함, 서리 안개 휘감은 채 머무르는 처연함 등 큰 울림이 돼 주기도 한다.

작가의 붓 터치에서 때로는 낮은 막연함이 아닌, 가끔은 직접 마주한 마을 뒷동산에 하나 짙은 있음직한 거북등처럼 선 굵은 소나무, 솔향 따라 고즈넉한 고향길 흙·풀냄새 풀풀거리는 정경 또한 그려지면서 속마음을 풀어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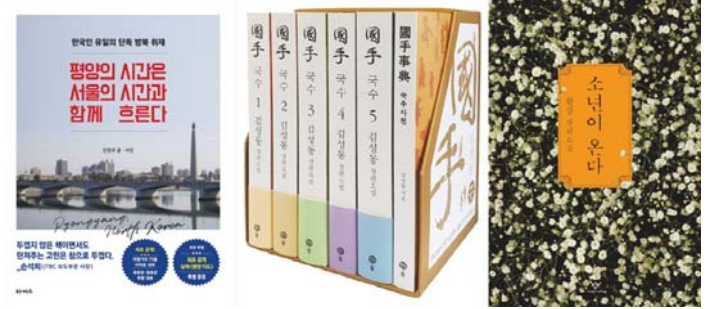
이 작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에 지치고 버겁기 만만 현실속에 마음의 평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이번 'Pine Grove展'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작가는 특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전주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지인,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 분들을 모시고 전시회를 가지는 게 떨림으로 다가오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셔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 가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미경 작가는 2018 대한민국 기로미술협회 추천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기로미술대전 한국화부문 금상, 대한민국 기로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은상, 대한민국 한석봉사에대진 한국화부문 최우수상 등 수상 이력이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들

문재인 대통령 휴가책 특수

청와대 발표 직후 판매량 251.2% ↑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김성동의 '국수(國手)'를 읽었다고 공개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들 3종의 도서 판매량은 청와대 발표 이후부터 6일까지 약 251.2% 증가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전주 동기 대비 189.6% 증가했다. '국수'는 351.5%, '소년이 온다'는 229.6%로 대폭 늘었다.

베스트셀러 순위권에도 진입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정치 외교 분야 2위에 올랐다. 소설 분야에서 '국수' 15위, '소년이 온다'는 11위에 꽂혔다.

이 책들은 주로 40~50대 독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40대 34.1%, 50대 36.5%의 비율을 보였다. '국수'는 50대 이상(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년이 온다'는 40대(37.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온다'는 40대(37.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수'는 남성 대 여성 독자의 비율이 6대4 수준이었다. '소년이 온다'는 여성 독자(69.6%)가 남성 독자(30.4%)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방북 취재에 성공한 진천규 기자의 포토 에세이집이다. 휴대폰을 매일 쓰고 맥주를 즐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학생들의 등굣길, 농촌 풍경 등이 담겨있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특집은 판문점 출입 기자로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5부작으로 출간된 김성동의 '국수'는 바둑을 비롯해 소리, 글씨, 그림 등 최고의 경지에 오른 조선말기 예술가들의 이야기다. 국수는 바둑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뉴스

'웃놀이와 치즈체험' 임실서 한번에 즐기세요

'웃가락~ 치즈가락~'

10월까지 치즈마을서

임실치즈마을에서 이색 체험프로그램인 '웃가락 치즈가락'이 전북도와 임실군의 지원을 받아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도 '전통놀이현대(생활)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33호 '임실 상가 웃관형안각화 유적' 홍보와 함께 전통 웃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전한 웃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8년 '웃가락 치즈가락'은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 회 선착순 30명을 예약 받고 있는데, 가족단위 체험객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이미 8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웃가락 치즈가락' 프로그램은 전체 셋째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째 마당은 임실의 대표적인 체험관광상품인 치즈와 웃놀이를 접목시켜 웃가락을 담은 치즈를 만들고, 웃관 속 별자리 이야기를 웃관 피자로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둘째 마당에서는 임실에서 주로 행해졌던 까쟁이 웃놀이를 두 팀으로 나누어, 사람이 직접 웃놀이 말이 되어 노는 색다른 웃놀이를 진행한다.

셋째 마당은 야외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마당으로 나만의 웃 만들기, 웃점보기, 지게 웃놀이, 사방치기, 달팽이놀이 등을 자유롭게



임실치즈마을에서 이색 체험프로그램인 '웃가락 치즈가락'이 전북도와 임실군의 지원을 받아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즐길 수 있다.

'웃가락~ 치즈가락' 프로그램은 7월에서 9월중 여름방학과 여름휴가기간, 격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여 문의는 임실치즈마을 ☎ 643-3700 또는 홈페이지(<http://cheese.invl.org>)

)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임실치즈마을 작은음악회와 치맥파티' 기간 동안에 '웃놀이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려인 후손 청소년과 무주군 청소년, 태권도원에서 만난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고려인 4~5세대 청소년들을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태권도 체험 등을 진행하는 '고려인 청소년 초청 태권도체험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일까지의 1차 프로그램에 이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희망꿈나무아카데미, 사)국제청소년문화교육연맹,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차 프로그램과 달리 2차 프로그램에서는 고려인 후손 청소년 20여명과 태권도원

이 위치한 무주군의 청소년 30여명이 함께하며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 그리고 무주군 호룡마을에서의 문화활동 등 태권도와 또래 청소년간의 유대를 통해 모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키우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긍지를 일깨워주고 싶다"며 "재단은 태권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